01 교회소식

"예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주신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전한다.

02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주님은 모든 말과 행실이 고우시며,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셨고, 항상 간구하는 분이셨다.

03 기획특집

3년간의 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급속한 영의 흐름을 타며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기 위해 달려온 축복의 시간을 되돌아본다.

04 간 증

범사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결혼 9년 만에 아들을 얻은 곽희용 집사와 무안단물로 최상품의 사과를 수확한 일본 미야시타 치도세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613호 2013년 12월 22일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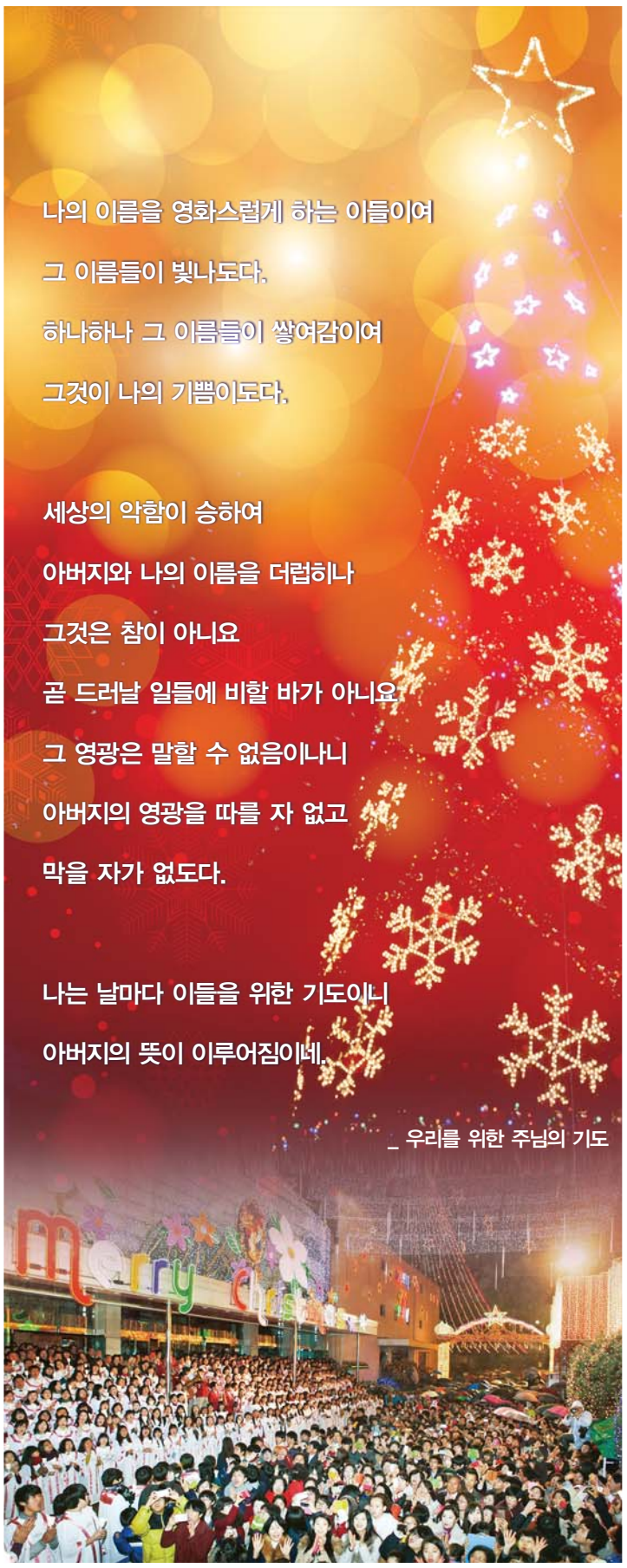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12월 25일,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을 기다리며

2013 성탄 점등식, 성탄 전야예배 및 축하공연, 성탄 축하예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 성탄절이 다가온다. 목자의 사랑으로 변화된 성도들은 어느 해보다 뜻깊은 12월 25일을 맞이해 기도와 금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영과 온 영의 마음을 주님께 선물해 드리고자 분주하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서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모습이 역력했으며,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주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성탄 장식을 하는 손끝 하나하나에도 사랑과 정성이 가득했다.

지난 12월 20일 저녁 9시 50분 금요철야예배 전 우리 교회 본당 앞에서는 수천 명의 성도가 모인 가운데 성탄 점등식이 있었다. 올해에는 눈 결정체를 모티브로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눈처럼 온 인류를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의 '포근한 사랑'을 주제로 표현했다.

본당의 단 좌우에는 함박눈이 소복이 덮인 4미터 높이의 대형트리가 장식됐고, 단 아래에는 엘이디(LED)판이 다섯 가지 색깔로 디밍(Dimming)되면서 전 세계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깨우는 성결의 오중복음을 나타냈다. 단 왼편 벽면에는 천국의 꽃밭을 액자 속에 파노라마 형식으로, 성가대석은 음표와 눈결정체로, 기둥에는 아름다운 문양으로 장식했다. 또한 본당 2층 라운드는 커다란 별과 LED, 아크릴 눈결정체를 활용해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께 나와 경배드린 장면을 장식했다.

성전 외부 지붕 위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행복한 성탄절,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가득 실은 기차가 달려가고, 성전 마당 대형트리에는 성도들을 변화와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흘린 목자의 희생의 눈물을 표현했다. 본당 내부는 디자인선교회에서, 2·6성전은 가나안선교회, 3성전과 본당 로비는 청년선교회, 4성전은 아동주일학교에서 담당했고, 외부는 샤론선교회와 시설관리국에서 장식했다.

성탄절 전날인 24일 저녁 7시에는 1부 예배와 2부 축하공연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시간이 있다. 신동초 목사는 '그 이름 예수'(마 1:21)라는 제하의 설교를, 예능위원회에서는 축하공연 '주님의 사랑'을 신푸름 자매의 사회로 약 1시간 동안 진행한다.

예능위원회 위원장 이희진 목사가 총연출을 맡은 축하공연은 천상의소리선교단, 천상의무용팀, 파워워십팀 등 예능위원회 정상 팀들과 국내 최초 찬양전문 오케스트라인 닛시 오케스트라를 비롯, 외부에서 공연 전문 스태프들이 첨단 특수 효과를 담당하는 등 250여 명이 참여한다.

1막에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보는 영상이 상영된 뒤, '탄생', '사역', '고난', '부활&승천'을 주제로 주님의 일생을 보여준다. 2막에서는 성도들이 급속한 영의 흐름을 타고 온 지난 3년을 상고해 볼 수 있는 영상을 상영한 뒤, 'JESUS', '영광5', '기쁜 날', '축하', '주님의 사랑' 등 찬양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린다.

성탄절인 25일 오전 11시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아버지의 사랑'(요일 4:16)이라는 제하의 설교로 성탄 축하예배를 드린다. 성탄 전야예배와 축하공연 및 성탄 축하예배는 GCN 방송(www.gcntv.org)을 통해 생방송으로 전 세계 성도가 함께할 수 있다.

포토뉴스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전하는 최고의 성탄 선물 !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비결이 담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볼 수 있는
핸디북 3종 발간 !!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된 복을 좇는 자』

예수 그리스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8)

성탄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복된 날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희생시키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값진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선물을 드릴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자신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귀한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고우신 분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양이 거칠지 않고 모나지 않으며 부드러운 것을 '곱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처럼 예수님은 마음과 행동, 말씨 모든 것이 고우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라고 묘사했습니다(마 12:19).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롭고 그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손을 얹기만 해도,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받았고 소경, 귀머거리, 중풍병자는 물론 죽은 자도 살리는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성난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잠잠해졌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들레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칭송받기 원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자 길을 걸을 때도 조용히 걸으셨고 요란하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큰 권세와 능력을 소유했다고 사람들을 제압해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남을 해치는 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소자 한 사람도 섬기셨고, 오히려 낮아져서 피조물인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며 틈만 나면 올무를 놓으려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책망을 하셨지만 이는 그들과 싸워 이겨 억지로 굴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였지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말씀하신 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을 법한 영혼들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고운 마음을 지닌 분이 다른 사람에게 거친 말이나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궤사도 없으시며" 하신 대로 예수님은 모든 말과 행실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셨습니다.

2. 철저히 희생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날부터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날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영혼들을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생들을 속량하시려고 '짐승의 우리'에서 나셨습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려고 '구유'에 누이셨지요.

인생들을 가난의 저주에서 풀어 주시려고 부요하신 분임에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려고 채찍에 맞아 온몸이 상하셨습니다. 마침내는 죄인들을 대신해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예수님은 무엇을 넉넉하게 누릴 권한도 자유로이 살 권리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영혼들만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전혀 없으셨지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신 대로입니다.

이 희생은 '내가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이런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인생들이 내 뜻과 내 말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군림하고 높임 받기 위해 계산적으로 희생하신 것도 아니었지요.

예수님의 희생은 오직 '순전한 사랑'에서 비롯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또 가장 귀한 것 바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으나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노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희생을 통해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인생들에게 전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이 희생은 예수님이 어찌하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고픈 마음을 표현하신 사랑의 행함이기도 했지요. 예수님은 그 귀하신 몸을 제물 삼아 인생들에게 구원과 천국을 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오직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희생으로 결국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 천국 길이 열렸지요(히 10:20).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항상 간구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결이나 사랑을 구하실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분이시니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시면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신 것입니다.

구세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해 주시기를, 영혼들을 깨우쳐 주시고 제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늘 간구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응답이 주어진다는 영계의 법칙을 매우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셨기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온전히 헤아려 이뤄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따르는 행함입니다. 목자를 사랑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에서부터 스스로 우러나와 기도하고픈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눈치 보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는 꿈꿀 수 없었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목자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마음이 간절하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성결을 위해, 사명 감당을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 늘 기도하며 주님의 선과 사랑을 닮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하신 대로 장차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3년간의 특별한 사랑과 권능의 역사

2010년 12월 25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성탄절을 맞아 만민 위에 축복의 날을 허락하셨다. 이날을 기점으로 전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자신을 위해 간구하시는 목자의 희생과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다.

또한 죄인 된 자신을 대신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후 대학생들을 시작으로 '새 예루살렘 가기 운동'이라는 전 성도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났다. 목자의 사랑과 권능을 믿기에 '첫사랑 회복, 신앙의 기본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목자와 함께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게 된 것이다.

2011년 5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의 공간에서 나오는 근본의 빛을 느낄 수 있도록(겔 1:27~28, 계 4:3)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오로라 빛으로 펼쳐 주셨다. 성도들은 이 아름다운 빛에 담긴 갖가지 형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영의 세계를 보고 느끼며 믿음과 천국 소망을 더했다. 또한 성령 충만을 입어 성결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급속한 영의 흐름을 탈 수 있었다.

6월,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인도하는 3회 연속 특별 은사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의 시력이 회복되고 갖가지 질병이 치유되는 등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크게 나타내 믿음을 더해 주셨다.

7월, 만민을 향한 거대한 계획 속에 목자를 통해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며, 전국 기관장 교육을 통해 믿음의 반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아홉 가지 사항을 점검하며 영과 온 영의 믿음을 향해 힘차게 이뤄가는 주의 종과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12월, 주일 저녁예배 후 열린 미니 은사집회 시 하나님께서 보이신 목자의 사랑의 표증을 통해 많은 학생과 젊은이들,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 목자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다시 한 번 결단하는 시간이 됐다.

성탄절에는 많은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을 허락하시며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모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자발적으로 송구영신예배를 맞이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교회가 됐다.

2012년 3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한 축복잔치를 통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셨다.

7월,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을 통해 영의 단계를 세분화해 알려 주심으로 영과 온 영의 마음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에 자신감을 갖게 하셨다.

교회 개척 30주년 기념 주일에는 새로운 도약 곧 대반전의 역사와 재창조의 권능을 선포케 하셨다.

10월,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에 하늘 곧 영의 세계를 펼쳐 보이시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 권능,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준 높은 찬양 문화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는 하나님을 닮은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었다.

12월, 감동의 성탄절을 보내며 송구영신예배를 통해 근본의 소리가 발해져 자유의지를 움직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자발적으로 하며 응답과 축복을 받아갔다.

2013년 3월, 주의 종들과 레위족들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부활주일에 목자의 중보기도를 통해 공의로는 보응받을 수밖에 없는 죄까지도 해결받게 됐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도 죄의 짐을 떨쳐버리고 이전보다 신속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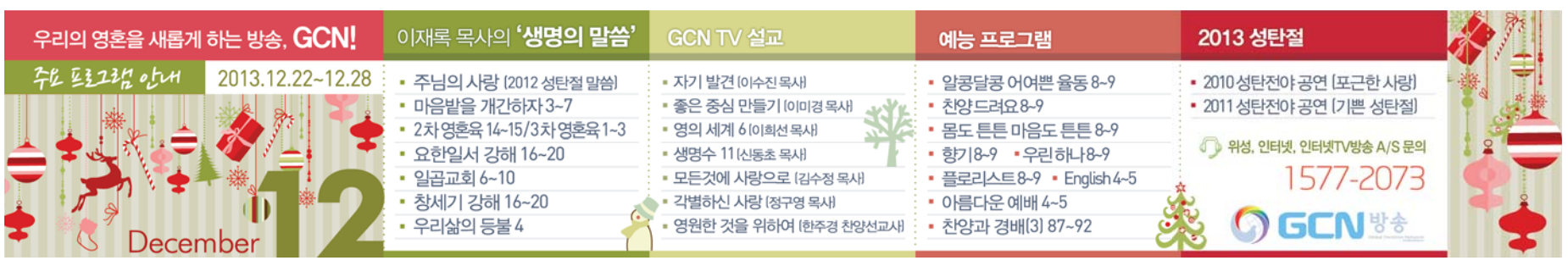
5월, 성결한 주의 종과 일꾼 8명이 목자의 기도를 통해 한 자리에서 영이 분리돼 지옥과 음부와 천국의 각 처소를 보고 왔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이재록 목사가 증거해 온 천국과 지옥에 대해 생생히 들을 수 있었고 천국과 지옥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 아울러 천국 소망이 더해지되 새 예루살렘의 깊은 곳까지 알게 돼 영과 온 영을 이루려는 실질적인 행함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7월, 하나님께서는 전국 기관장 교육을 통해 신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온 영의 마음을 알려 주셨다. 이에 성도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키우며 영 대기자, 온 영 대기자가 많이 생겨났다.

8월, 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만민하계수련회는 성도들에게 큰 믿음이 됐고,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고 응답과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다. 그 주 금요철야예배 2부에는 권능과 능력 인침의 기도 시간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에 영을 향한 사모함이 가득하게 됐다.

10월, 교회 창립 31주년 축하공연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사랑,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더욱 넘쳐났고, 성도들의 목자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향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

12월 25일, 지난 3년간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에서 '아버지'로 느낄 수 있도록 수많은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다. 여기에는 목자의 많은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야만 했다. 우리 죄에 대해 참으시고,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감당하셔야 했던 공의를 채워가는 모든 과정을 견디시며 믿음의 열매가 될 것을 바라셨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는 영광의 2013년 12월 25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곽희용 집사 (3대대 32교구, 41세)

“결혼 9년 만에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기까지 모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2004년 6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만난 김효정 집사와 결혼했습니다.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니 다툴 일도 없고 함께 기도하며 잘 지냈지요. 그런데 이러한 행복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직장생활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평소 좋아하던 인터넷 게임에 점차 빠져 들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거룩한 주일은 아내 눈치 때문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날에 불과할 정도로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았지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뒤늦게 아이를 갖고자 노력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 7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권능을 믿기에 잉태를 위해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뒤 임신이 됐지만 6주 만에 유산되고 말았지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에 ‘혹시 나 때문에 유산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임신 중에 조심했어야지.” 하며 마음 아파하는 아내를 탓했습니다.

그 후 저는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며 다짐했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여전히 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가기 운동’을 통해 전 성도들이 세상 것을 온전히 끊고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채워 신앙을 회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뜨겁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는 산상기도를 하시며 성도들을 위해 애통의 눈물로 사랑의 중보기도를 해 주고 계셨지요. 그런데도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안주하며 구습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2011년 6월, 제가 속한 교구의 대대교구장이신 이미영 목사님의 가정심방을 받았습니다. 저의 변개함, 간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할 것과 불같이 기도해야 함을 권면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절박했던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했지만 진정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과 영혼이 잘되면 자녀의 축복도 따른다는 것을 깨우쳤지요.

이후 저는 매일 밤 열리는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통회자복했습니다. 퇴근이 늦어져도 꼭 성전에 들러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했지요. 그리고 제 마음을 지키고자 매 주일 대대교구장님을 찾아가 권면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또한 당회장님의 신앙서적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깨우쳐 주님 마음을 닮고자 노력했지요. 그러자 아이를 갖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니 순산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올해 2월, 설 주간에 당회장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해 주신 축복기도를 받은 후 바로 임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부활주일, 당회장님과의 가족 만남이 있었지요. 당시 아내는 임신 9주째였는데 당회장님께 “집안에 아들이 귀해 아들을 원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소원대로 아들 출산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과연 그 기도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임신 16주 무렵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딸이라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S대 의대 교수들이 진료하는 병원이었지요. 하지만 아내는 당회장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기에 분명 아들을 출산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임신 20주경 정밀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아들이었습니다. 딸이 아들로 바뀐 것입니다.

마침내 지난 10월 29일,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렌트카 사업에도 축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2년 전, 렌트카 6대의 작은 대리점으로 시작했는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니 50대 이상 보유한 본사를 설립하고 현재 86대로 번창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런 하나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하며 참믿음을 소유하게 됐고, 각자 구역장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하게 주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혼 9년 만에 예쁜 아들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무안단물로 최상품 사과를 생산했어요”

미야시타 치도세 성도
(일본 이다만민교회, 43세)

저는 올해 3월부터 이다만민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매주 동시 화상예배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쳤습니다. 어찌하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의 손길을 체험했지요.

지난 10월의 일입니다. 저는 사과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사과나무에 농약을 치는 시기에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후 농약을 뿌렸더니 그때마다 바람을 막아 주시는 신기한 체험을 했지요. 또한 올해는 태풍이 잦아서 근처 과수원에는 수확하기 전에 낙과 피해를 입었지만 저희는 무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회장님 기도로 바닷가의 짠물이 단물로 변한 ‘권능의 무안단물’(출 15:25)을 이용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한국에 다녀오신 유승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건네받은 한 병의 무안단물을 농약과 섞어 사과나무에 뿌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매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의 사과들까지도 잘 익어 맛이 좋았습니다. 주변 과수원 사과와 비교해볼 때 그 크기나 색깔, 당도도 뛰어난 최상품의 열매였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권능 앞에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동평로 168(부암1동)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벽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운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홍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월피동508-1 ☎031)485-9143,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